

국립현대미술관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  
〈매트릭스: 수학\_순수에의 동경과 심연〉 전시기획론  
손주영(국립현대미술관)



## I. 머리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소격동)은 개관 특별 전시의 하나였던 《알레프 프로젝트》(2013)로 시작한 '지적 즐거움의 시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 《매트릭스: 수학\_순수예의 동경과 심연》(이하 '매트릭스')(2014.8.12-2015.1.11)전을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수학과 예술의 실천들이 함께 발화할 수 있는 지점을 실험하는 자리이자, 국제수학연맹(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이 주최하는 세계수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미술사에서 에셔, 뒤상, 몬드리안 등 근현대 미술 곳곳에 수학적 개념을 차용한 작품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트릭스》전은 수학과 미술 사이를 잇는 습관화된 인식의 틀을 낫설게 하는 융복합적 탐구를 시도하기로 했다. 철학자 김상환은 융복합에 대해 「초학제 연구의 문제들 -분류, 상상, 창조」<sup>21)</sup> (2014)에서 '서로 다른 주제와 목적을 향하는 학문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심연을 횡단(transverseness)하는 것'으로 서술한 바 있다. 이 횡단은 그 사이 거리와 횡단의 경로 및 방향은 물론 횡단의 목적과 횡단 시 원칙을 일반화 또는 규범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상당히 막막하기 마련이다. 들뢰즈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정주민적 사유가 아닌 유목민적 사유를, 편집증적 사유가 아니라 분열증적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학의 고등 이론을 소환하는 기존 전시 기획의 지형과 사유 구조를 배제하고 새로운 융복합적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전시 기획 방법론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시 기획 담론 일반이 전제하는 방법론적 규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론지'(episteme)에 기댈 수 없는 새로운 '실천지'(phronesis)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기획 단계나 설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 상황의 전개에 따라 새로운 공명을 감지하고 그에 걸맞는 규칙과 행보를 고안해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는 미술계에 구축된 일련의 지식 체계(이론적 지혜)와 전시 기획에 전승된 선입견을 배제하는 대신 '시적' 지혜를 덧입히는 작업이었다. 김상환은 지혜의 성질이 다름을 서로 언어가 다름으로 유래함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의 차이를 빌어 과학적 사유를 대변하는 로고스(logos)의 언어와 서사적 사유를 대표하는 뮈토스(mythos)의 언어로 나눌 수 있다. 기호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최용호 역시 「서사적 사유와 과학적 사유 그리고 세계 -밤의 창조성」(2014)<sup>22)</sup>의 발제문을 통해 로고스의 언어가 뮈토스의 언어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뮈토스의 언어가 로고스의 언어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오늘날의 사회 한 단면을 지적한 바 있다.<sup>23)</sup>

## II. 본문 I

근대 이후 우리는 '수'와 '계산'에 의해 통제 받는, 소위 '수학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학은 자연 언어를 쓴다는 형식 외에 다른 분야와 별다른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지만 기실 그 영향력을 우리 사회 전면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자본

21) 김상환, 초학제 연구의 문제들 -분류, 상상, 창조,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 학술대회, 2013.4.18), p. 29.

22) 최용호, 서사적 사유와 과학적 사유 그리고 세계 - 밤의 창조성, (초학제 심포지엄, 2014.8.21), pp.35-52.

23) 오직 하나의 언어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회가 편집증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주의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열되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를 '수'로 정착시켰다. 이번 전시 제목 '매트릭스'는 여러 어원과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수학에서 수를 나열하고 이들을 괄호로 묶어 네모꼴로 배열하는 '행렬'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수학화된 단면을 예술의 지점에서 조망하는 이번 전시에서 '매트릭스'는 시각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부제인 '순수어의 동경'은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수학자들의 열정을 은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론적 완결성을 쫓아 수학자들이 만나게 되는 수학적 진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수학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 하이데거가 언급한 삶의 '심연'을 덧붙였다. '심연'을 부정적인 감정과 혼돈의 클리셰(cliché)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로고스의 언어로 보자면 '심연'이란, 설명할 수 없고 계산 불가능한 지점을 의미한다. 이 심연이라는 측정할 수 없는 시공의 어딘가에서, 수학은 또 다른 세상(예술)과 만나게 될 가능성을, 다시 말해 횡단의 가능성 또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번역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예술은 오랫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상상을 가능케 해왔다. 우리는 예술을 접하면서 종종 이러한 '심연'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상상과 사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술만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학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계산 가능한 사회가 대두되며 사람들은 수학의 '심연'에 빠지기 전에 수학과 작별을 고하고 만다. 수학에 고착된 대중적이고 습관화된 은유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지 수학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수학(로고스)의 공간이 논리적 분석과 증명의 공간이라면, 예술(뮈토스)적 공간은 다의적 상징으로 넘치는 역사적 서사의 공간이다. 마치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듯 예술가들은 수학적 개념을 은유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수학을 심연의 지점, 즉 계산 불가능한 지점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로고스 언어와 뮈토스 언어는 각자의 영토를 점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횡단하는 과정 속에서 '심연'을 만날 때 비로소 감동, 영감을 불러들인다.

### Ⅲ. 본문 Ⅱ

《매트릭스》전은 예술가가 횡단의 주체가 되어 로고스 언어를 자신의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 자리이다. 참여 작가들은 오늘날의 수학화된 사회를 나름의 성찰적 태도로 사유하는 '동시대' 작가들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전공 분야와 시각적 표현의 방법론적 언어 모두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전시를 구성하는 참여 작가의 군을 '행렬'로 묘사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행은 베르나르 브네, 슬기와 민과 랜덤웍스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분야를 횡단하는 목적과 그 차이의 거리를 인지하고 있는 작가들이었다. 그들은 횡단의 가능 조건을 새롭게 부여하기도 하고, 혹은 불가능하게도 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행은 로고스적 언어를 사유하는 예술가와 뮈토스적 언어를 사유하는 수학자들을 포함한 작업들이다. 로고스 공간에서만 있을 것 같은 수학자들이 뮈토스적 감각을 역설하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카테리나 에레멘코)에서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작업한 뉴미디어(김경미, 이상민, 고병량, 이강성), 건축(국형걸), 사운드 아트(카스텐 니콜라이)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었다.

한편, 동서양의 작가와 작품 간에 ‘인물성동이론’<sup>24)</sup>적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작품 배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자비에 베이앙과 유지원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회 문화사적인 접근으로 수학의 로고스를 뮌헨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자비에가 서양의 근대적 성취와 기획들 전반에 내재한 계산 가능성과 수학적 본질주의를 현대적 조각의 형태와 세련된 미술 언어로 표현해냈다면, 유지원은 서양에서 쓰이는 단위를 비롯한 수학적 사유와 접근 방식과는 다른 전통적인 동아시아권 문화에서의 수학적 개념을 정제된 디자인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전시 공간에서 작품들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은 어쩔 수 없이 유목민적인 ‘횡단’의 사유를 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전에서 수학과 예술 사이의 횡단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수학적 지식도, 예술적 기교도 아닌, 바로 ‘시’였다. 전시 기획을 위한 나름의 규칙과 행보를 전개하는 데 있어 수학자의 상(image)을 세우는 것은 필수 불가결했다. 많은 수학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상이 그려졌지만, 고등과학원의 최재경 교수는 앞서 말한 ‘시적 지혜’를 기획에 덧입히는 영감의 단초가 되었던 수학자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사유의 과정에서 수학과 시가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이 맞다면 - 즉, 사유가 전개되기 위해 시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면, - 최재경의 시 <꽃과 노을과 그림> (2012)는 분명 수학과 예술 사이를 횡단하는 이번 전시 기획을 가능케 한 중요한 발동기같은 역할을 했다. 시인인 수학자가 시어와 맺는 관계 속에서, 로고스와 뮌헨 사이를 오가는 그의 ‘횡단’에서 우리는 순간적이거나 찰나에 ‘심연’을 느낄 수 있다. 송희진은 수학자 최재경의 일상적 사용 사물들을 아카이브로 하는 신작을 통해 시와 사물이 어우러진 수학자의 방을 제안했다. 이 작품은 수학자의 시에 마치 현전성(presence)을 부여해주는 듯, 또는 로고스와 뮌헨의 만남을 상징하려는 듯, 전시장의 중간에서 두 개로 나뉜 전시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IV. 결론

융복합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예술이 수학과 대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융복합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와 거리를 은폐하지 않는 정신의 형식을 전제로 한다. 《매트릭스》전은 수학과 예술을 통해 로고스와 뮌헨의 대립과 완강한 차이를 좁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은 번역가이자, 횡단을 실천한 모험가들이다. 《매트릭스》전은 관람객에게 다소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드는 전시일 것이다. 수학과 예술의 배후에 있는 삶과 사회를 바라보고, 그들 사이의 최후 거리를 횡단하는 반복 운동에 관람객이 직접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24)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의 본성이 서로 같은가 혹은 다른가에 대한 이론을 총칭한다.